

사격세 “대입개편 혼란 불가피”

혁신학교 확대·고교학점제 폐기 수순 “대입개편 공론화 자체도 문제 있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오는 3일 시민참여단이 결정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세상(사격세)은 수능 상대평가, 수능 위주 정시 확대를 결정하면 교육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격세는 1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를 결정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문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확대에 제동이 걸리며 극도의 혼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능 상대평가와 수능 정시 확대라는 결정을 반영해야 할 대학측과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특히 수능 정시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더라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더 많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법적 타당성 시비를 자극해 또다른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는 이와 호응할 수 없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을 의미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실 수업혁신 역시 멈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능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 수업은 수능을 대비하는 과거 퇴행적 방식으로 전환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혁신학교 확대는 물 건너갈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격세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입개편 방향을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맡기는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대입개편 방향은 일반시민들이 2~3일간의 학습 과정을 거쳐 결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공론화를 하더라도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등 국가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몇가지 선택지를 주고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491명의 의견을 묻더라도 정부가 대입제도 방향을 처음부터 제시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교육부도 국가교육회의도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491명의 시민들에게 수능체제의 방향과 가치는 물론 구체적인 대입 시나리오 결정조차 모두 맡겨버렸다”고 덧붙였다.

또 “8월11~12일 워크숍때 위원회는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단체들을 불러 모아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제안하라고 한후 이를 줄속으로 확정했다”며 “그러다보니 각 시나리오 내부에서 시나리오 결정 방식과 관련해 오해와 혼란이 발생했고 결국 수능 상대평가 3개팀, 절대평가 1개팀으로 확정됐다”고 꼬집었다. /뉴스



호원대학교 도서관이 1일 혜성지테크와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복지·지식함양 위한 맞손

호원대 도서관-혜성지테크 업무 협약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도서관이 1일 혜성지테크와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대학 도서관(관장 김미형)과 (주) 혜성지테크(대표 박해식)는 도서관장실에서 양 기관의 인재를 위한 복지·지식함양을 위해 전문자료 제공 및 인재양성에 관한 업무교류 협약을 맺었다.

대학 도서관은 사회적 책임실현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해 지역민과 기업체에 관내 도서관 자료 뿐만 아니라, 전자자료, WEB DB, 오디오북, e-러닝 등 각종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민과 유대관계를 쌓고, 또한 산업체에서 필요한 전문서적 등을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전문지식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협약을 맺게 되었다.

혜성지테크는 호원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산업체 경험을 쌓는데 함께 하기로 하였으며, 취업 및 연구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미형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이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기업 직원들에게도 참고봉사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기업체에서 필요한 전문도서자료를 요청할 시 해당 국내·외 자료를 제공하므로 대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식창고의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박해식 (주)혜성지테크 대표는 “대학 자료를 맡겨서 이용하여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하며, 미래 인재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 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유학생 유치 기반 마련 앞장선다

원광대 토목환경공학과, 해외 건설기술 정보교류회 성료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창의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Eco-Green 건설기술 창의전문인재양성 특성화사업단)는 중국계립전자과학대학 교수와 학생들을 초청, 정보교류회를 개최했다.

특성화사업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류회는 원광대 토목환경공학과와 MOU를 맺은 중국계립전자과학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등 18명의 방문단이 원광대를 찾아 학과를 견학하고,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방문단은 토목환경공학과 실험실 및 연구실을 견학하면서 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어

문화 체험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왕궁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등을 돌아보았으며, 새만금 홍보관 및 33센터 방문을 통해 새만금 토목건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펼쳤다.

한편, 원광대 토목공학과 해외 건설기술 정보교류회는 특성화 분야 관련 전공 과정의 국외 학생 초청 및 정보교류회를 통해 학과를 소개하고, 국내 건설 현장견학, 문화체험 등으로 유학생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원광대 학생들이 국외대학을 방문할 경우 현지 대학 지원과 함께 학과교육의 글로벌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Eco-Green 건설기술 창의전문인재양성 특성화사업단)는 중국계립전자과학대학 교수와 학생들을 초청, 정보교류회를 개최했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형성 역량 키우기

군산시, 지역 내 중3 학생 대상 멘토링 캠프 운영

군산시의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13개 학교의 3학년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및 학습 동기 부여 멘토링 캠프를 운영한다.

올해로 8년째 운영되는 이번 하계 캠프는 전북의 고창·진안에서 1기(8.1.~8.3.)와 2기(8.8.~8.10.)로 나누어 진행되며 상급학교로 진학을 앞둔 여름방학 기간에 진로 계획을 보다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드림업(Dream up) 프로젝트를 비롯한 맞춤형 학습전략 프로그램, 오답노트 작성법 등 총 8교시로 나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군산글로벌리더아카데미(주말 학습에서 배출한 서울소재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12명의 멘토 대학생이 참가학생들과 한 팀을 이뤄 멘토와 함께하는 진로대학 탐방, 학습 및

생활태도, 입시 노하우 등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캠프는 지난 7월 13일에 실시된 3중 진단검사(성격유형, 자기조절 학습, 진로탐색)를 토대로, 캠프 기간에 학생들의 진로와 목표 대학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별 1:1상담을 해당 학생의 학부모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역할과 교육법 지도, 자녀의 진로선택,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도 함께 진행해 다양한 학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대성 인재양성과장은 “중3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스스로의 목표



를 계획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를 바란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고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가족과 함께하는 1박2일 과학캠프

고창선운산유스호스텔서 30가족 120명 참여

가족이 함께하는 ‘과학사랑 한마음 과학캠프’가 오는 3~4일 고창선운산유스호스텔에서 열린다.

전북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과학교사교육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캠프는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실시하는 행사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1박2일 신나는 과학 한마당 축제다. 특히 한 가족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과학활동을 함께 하면서 과학적 탐구력과 심미력을 키울 수 있어 해마다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7월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의 신청을 받아 30가족

을 선정했다.

캠프 1일차에는 과학체험활동 후 과학미션을 수행하고 가족 과학영화를 관람하며, 2일차인 4일에는 고창 탐사르스길을 활용한 과학산책을 한 뒤 행사를 종료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연 속에서 신나게 과학활동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1박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과학과 인간, 자연, 문화의 소중한 가치도 생각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